朝鮮日報
夕刊 三日(日) 本紙夕刊十二面

金鶴香油

日支和平調停說 英大使全然否定 四國使臣會議說도 一笑

【香港二日發同盟】日支紛爭調停問題를 圍繞하고 香港方面에 關하야 當地駐在各方面의 視聽을 集中하고잇는 커英國大使는 二日午前六時 歐亞航空公司의 旅客機로 瑞典公使뻬크·프리스뿌와 同道하야 漢口로 向하엿다 漢口에서 蔣介石과의 會見은 注目되는데 香港에서의 同大使의 行動에 對하야는 支那側은 日支紛爭調停案 作成次 英獨伊 瑞典各國駐在使臣이 會議를 開催하엿다고 宣傳하고잇스나 右는 事實無根으로 昨日中村總領事의 訪問을 바든 커大使는 言下에 右說을 否定하엿스며 또蔣介石은 第三國의 調停을 受諾치안는다고 豫防線을 펴고잇서 日本側에서는 右說을 고지듯게될은 支那側에 對한 第三國의 同情誘致을 增大케할 可能性을 增進시키는것이라한다

【紐育二日發同盟】紐育에 達한U·P漢口電報에 依하면 駐支英大使 커氏는 二日香港으로부터 漢口에 到着하엿다 當面한 要件이라 傳하는 英國의 調停出馬說에 對하야 如左히 報道하고잇다 커英大使는 二日香港으로부터 漢口에 到着하엿는데 問題의 和平斡旋說에 關하여는 全然 이를否定하엿다 支那側代辯者도 亦是커大使는 和平調停의 使命을 띄고온것이 아니라고 이를 否定하고잇는데 커大使의 漢口訪問에 依하야 英國의 對蔣援助가 積極化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觀測이 有力하다

漢口陷落에 對處한 各國外交團準備

【紐育二日發同盟】紐育에 達한A·P上海電報는 上海外國側의 消息이라하야 漢口陷落에 備한 各國外交團의 動向에 對하야 如左히 報道하엿다 漢口에잇는 各國外交團은 前回까지에 漢口로부터 撤去할 豫定이던바 漢口攻略의 軍事行動이 이얼마큼 膠着狀態에 빠진때문에 當分間 漢口에머물러잇기로되엿다 今後의戰局發展에 對한 豫測이 서기까지는 漢口에서 撤去한後 重慶으로 갈는지 昆明으로 갈는지 그移轉處는 不確定한 狀態에잇스나 米國만은 昆明으로 移轉하기로 決定하고 目下昆明에 大使館設置 準備를 進行하고잇는模樣이다

安慶上空來襲한 敵二機를射落!

【安慶三日坂田、板垣同盟特派員發】三日午前九時半頃 敵飛行機가 安慶上空에 飛來하야 約三千米上空으로부터 敵機의爆彈을 投下하엿스나 我方에 被害는업고 敵一機는 我高射砲에 命中되여 火를吐하면서 安慶上流約五千米되는 揚子江上에 墜落하엿스며 다시一機도 黑煙을吐하며 逃走하다가 어드한安慶에서 墜落된模樣이다

安慶上空에 敵機來襲

【上海二日發同盟】二日午後三時二十分頃 安慶西南方數千米의上空에 敵機가 飛來直時 我高射砲의 猛擊에 遭遇하자 敵機의爆彈을 盲目的으로 投下하고 逃走하엿다 爆彈은 城外二키로의 수로等에 落下하야 樹木을 무찔럿슬뿐으로 我方에는 損害가업섯다

日滿通商條約 締結交涉訓電

【東京電話同盟】前報와가티 日滿通商條約交涉은 二日에 成立하게 이르럿스므로 外務省으로서는 不日滿洲國과의 全般的 日滿通商條約을 締結하고저 近近滿洲國外交部에 對하야 그締結交涉開始를 訓電하기로되엿다

社說 經濟警察制度

一

政府에서는 일즉이 近代科學戰爭에 잇서서 必要한諸物資 例컨대 金、鐵、銅、鉛、께소링其他의 使用을 節約할 目的으로 諸般의適宜한 措處를 實施하엿스며 또 從來에 混紡綿布類의 使用을 勸奬하여오든 方針도 一變하고 去二十九日에 商工省令을 發布하야 即日施行으로 軍需及特免品을 除하고 純綿製品은 勿論 混紡製品까지라도 一切綿製造及販賣(小賣業者除外)를 禁止하고 또現在製造業者나 卸賣商의 손에 잇는것은 二十九日以降一個月間 그加工을 禁止하엿을뿐아니라 一切纖維製品의 價格引上을 禁止하엿다. 뿐만아니라 同省에서는 本月一日 皮革의 使用制限、配給統制、製品販賣價格取締等規則을 發布하고 統制規則만 八月一日부터요 他二規則은 即日實施하게되엿다. 此等省令은 戰時物資의 動員과 및 物資管理에 잇서서 國策上絶對必要하기때문에 取한措處인것은 重言復言할 餘地가 업는것이다.

二

그뿐아니라 去一日에는 棉製고무 化學工業藥品 等에 對하야 中央物價委員會에서 最高小賣價格을 決定하여가지고 商工省에 諮問에 答申하여 即日施行키로되엿다는 消息이 傳하여오고 또 此等法令을 適切且有效하게 實行하고 또 今後에 實施될 國家總動員法에 備하며 戰時產業經濟의 統制强化를 行하기爲하야 特高警察同格以上의 大規模的 經濟警察制度를 確立할方針으로 內務와 商工兩省의 意見의一致를 보앗고 中樞機關으로서 本省에는 警保局에 經濟警察의 一課를 新設하고 六大都市와 主要府縣에도 各各專門의 課를 設置할計劃인데 所要經費로는 三百萬圓의 概算이요 人員으로는 約三千人에 達하리라고 傳하여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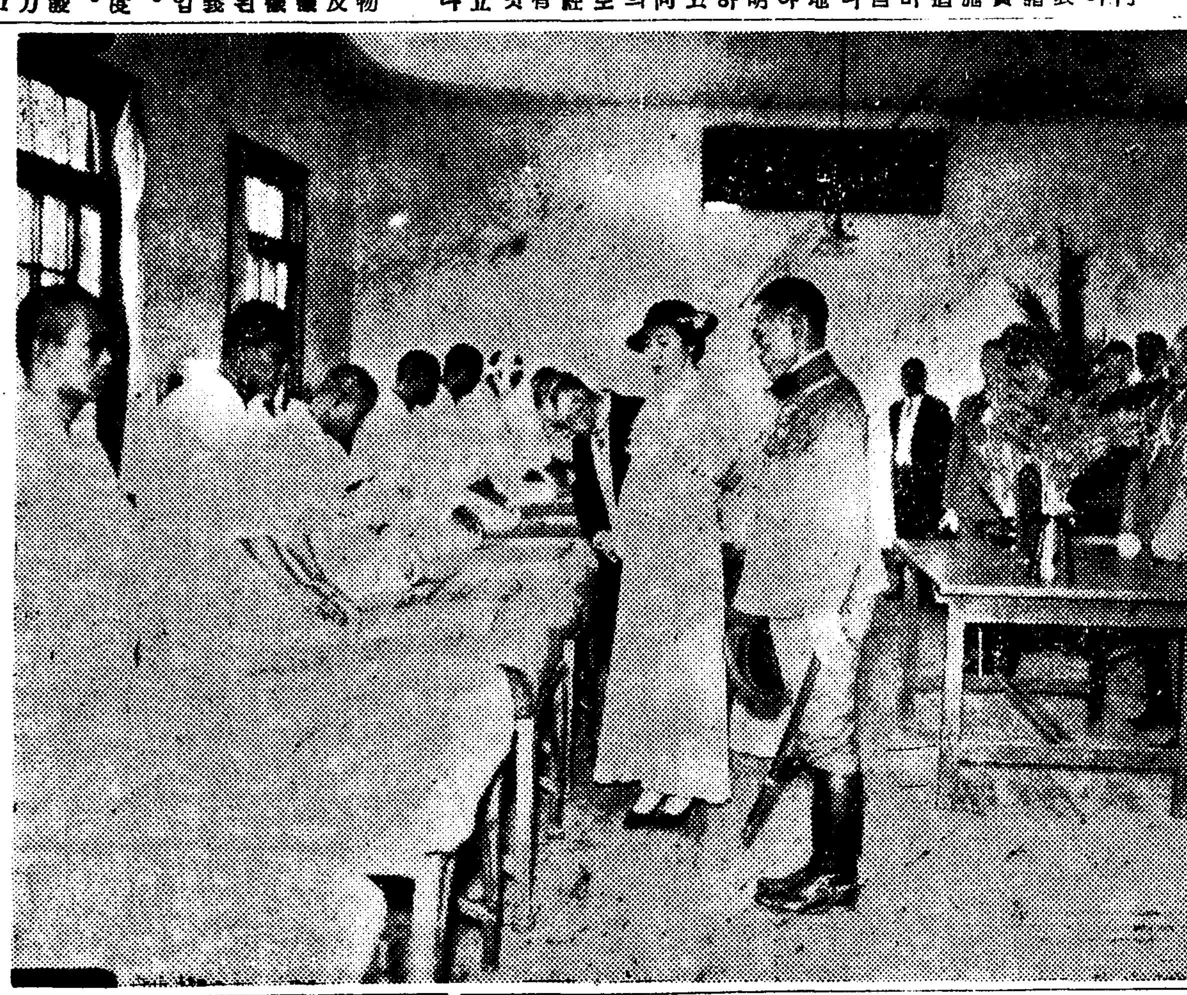
三

以上에서 叙述한바는 爲先內地의일이요 아직朝鮮에서는 이러타는 方針으로 世間에 發表된것이 업다. 勿論 前記한 諸法令中에는 벌서 朝鮮에서도 實施되고잇는것도잇서서 아직 實施되지아니한것이라고할지라도 追後로實施될것은 豫測하기 쉬운바이다. 다만 朝鮮에서는 朝鮮獨自의 特殊事情이 업는바도 아니므로 多少 事情을 斟酌할餘地는 잇겟지만 大局的으로 보아서 內地同樣으로 될것이 分明하다. 元來 現下時局下에 處하야 國民된者는 누구나勿論하고 事變의 目的을 達成하는대에 向하야 最善의 努力으로 政府의 根本政策에 對하여서 積極的으로 協力一致하여야만할것이므로 經濟統制와 物資管理의 各種法令을 有効且適切하게 實施하는데에 잇서서 特殊한 警察制度를 樹立치아니하여도 될것이라고하겟다

四

그러나 國家總動員 特히 物資의動員과 및 物資의 統制及管理에 잇서서는 一部產業의 犧牲을 要하게될것이요 따라서 犧牲되는 部門의 產業에 關係된 個人이나 團體에서는 利己主義의 結果로 反國民的擧措가 업슬것을 保障할수가 업슬것이다. 그러므로 於是乎 經濟警察制度의 樹立이 絶對必要한것이다. 다만 警察制度는 國家權力의發動을 前提로 하는것인데 權力은 强制를 內容으로 하게 되고 强制를 實行함에 잇서서는 法

…을 取扱하는 人的要素의 如何가 잇다 그러므로 一般國民이 何보다도 不平을 發하기쉬운 境우는 國家政策에 自發的協力을 하는 法令實施에 際하야 當局者는 絶對公正을 嚴守하여야 할 것이다.



大邱陸軍病院에서 白衣勇士를 慰問하시는 東久邇宮妃殿下

優渥하신 말슴을 平南道서所屬官署에示達

【平南支社發信】去月二十六日 戰傷病兵御慰問及 銃後狀況 御視察을 爲하사 御來壤하섯든 東久邇宮妃殿下께서는 翌二十七日道廳에 行次하시어 道內銃後報國狀況에 關한 道知事의 言上을 御聽取하시고 向後一層努力하라시는 御激勵의 말슴을 賜하섯는데 七月一日平南內務部長 產業部長 警察部長으로 官房主事 各部 各府郡守 所屬官署長에게 優渥하신 말슴을 다음과가티 通牒하여 依命示達하엿다

東久邇宮稔彥王妃聰子內親王殿下께서는 皇后陛下의 合命을 奉하시와 朝鮮에서 今番事變에 依한 戰傷病兵御慰問及 銃後狀況御視察을 爲하사 去六月二十六日 御來壤 翌二十七日道廳에 行次하시사 道內銃後報國 就中軍事援護에 關한 道知事의 言上을 御聽取하섯는데 今番事變에 際會하여 擧國一致한 道民의 赤誠에 對하사 기퍼御感하시어 御嘉賞을 賜하섯다

『事變以來 官民協力 銃後後援의 軍事援護와 生業報國에 異常의 努力을 繼續하고잇는狀況을 細密히 視察하시고 기퍼그勞를 多하사 『皇后陛下께 그 狀況을 詳細御報告言上하오면 必히 御滿足하옵실줄 아는바이다』時局 愈愈 重大를 加하므로 向後官民一致하여 銃後防護를 堅固케하도록 『一層努力하라』하시는 御激勵의 말슴을 賜하사 優渥한 御言葉에 진실로 恐懼感激하는바이다

各位는 이것을 部下職員에 傳達하는同時에 御仁慈에 奉對하고 御高恩을 奉謝하는同時에 今後一層 官民一致 忠誠奉公의 誠을 致하여 銃後後援과 時艱의 克服에 邁進토록 努力하라

佛軍、廣州灣頭서 陸海空大演習擧行

【紐育二日發同盟】佛國의 對蔣援助問題及 海南島問題等으로 最近 日佛關係는 極히 微妙한動向을 보이고잇는이때 二日 紐育에 達한 香港發U·P電報는 支那側으로부터 어든情報라하야 佛軍은 去六月卅日 廣州灣頭에서 大規模의演習을 行한旨를 如左히 報道하엿다

廣州灣佛國海軍根據地에는 最近새로 佛國의增遣艦隊가 到着되엿는데 이艦隊到着을 기다리여 佛軍은 去六月三十日 廣州灣一帶地區에서 陸海空軍聯合演習을 行하고 特히 十六吋砲二門의 試射를 行하엿다

蔣、決潰戰術을自誇

【紐育二日發同盟】二日紐育에 達한U·P上海電報는 外人軍事專門家의 觀測이라하야 漢口防衛狀況에 關하야 如左히 報道하고잇다

蔣介石은 漢口防衛의 最後手段으로 또揚子江의 堤防을 決潰하엿는데 그때문에 湖口下流二十哩地點에잇는 彭澤과 太湖를 連하는 揚子江北岸漢口防備第一線陣地에 對한 日本軍의 進擊은 相當困難케되엿다 그리고 一方支那側은 湖外地帶로부터 더러진 戰線에서는 日本軍이 着着前進하고잇스을 認定하고잇는데 日本軍은 支那側의 防備線을 數個所에서 突破하엿스나 아직總攻擊은 取하지못하엿다하야 揚子江의 決潰戰術을 자랑하고잇다

英海軍前途多端 新海軍協定成立으로

【東京電話同盟】英米佛三國政府는 限方式을 決定하고 各其調印을 지난三十日 新倫敦條約에 完了하엿는바 右新制限實施로서 마스커레이더條項發動에 伴한 新制에 依하면 四萬五千噸級의 大主力艦을 起工하엿다 그러나 米國海軍의 建艦計劃에 依하면 이미二隻을 起工하엿스며 一九三八年의 計劃에 잇서서는 新鋭主力艦二隻을 建造中이며 英國은 이에 對抗하기爲하야 이미三萬五千噸級의 新鋭主力艦四隻을 建造中인것이며 伊太利海軍은 現在三萬五千噸以上의 大艦을 建造할意圖는 업는것이나 그建艦方式에 追隨할수는 업는 米國海軍만을 對象으로하고 均等海軍國의 立場에서 對抗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特히 地中海의 制海權을 掌握한 伊太利海軍과 對峙하는 英國海軍은 이제 新建艦案에 依하야 다시 三隻의主力艦을 建造하기로 되여잇는바 그中二隻만은 建造計劃이 決定되엿으므로 今年七月부터 着手할 豫定이며 太平洋及 大西洋方面에 出現하게되며 英國으로서는 自國海軍만아니라 米國海軍에 對하야도 또한 적지안흔苦心을 要하게되며 萬若英國이 旣定計劃을 變更或은 擴充하지안는限 米國海軍으로부터 脅威를 밧게되여 英國海軍의 前途는 益益多端할것으로 觀測된다

本社懸賞寫眞 三等『새벽』(場所 大同江) 平壤府慶上里三一의一六 金柱炫

世界週史

內政會議開催

支那事變이 마츰내 長期戰第三段階에 들어가자 近衛首相은 擧國一致體制 强化의 必要를 痛感하고 戰時經濟의 再編成하고저 高度의 物資動員計劃을 決定하엿는데 이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는 軍需外交만을 主로하는 從來의 五相會議와는 別個로 首相을 爲始하야 藏商相、內相、文相等四相을 中心한 所謂內政閣僚會議를 開催하고 國民精神總動員問題를 爲始하야 農村、交通、通信等、內政全般에 亘한問題의 新方策을 樹立한後 物心兩方面에 亘한 根本對策을 攻究하기로되엿다

綿製品製造禁止와 皮革管理斷行

商工省에서는 時局에 비치여 七月一日以後、軍需品及特免品以外 一切의 綿製品의 製造、販賣、加工에 關한 制限及、纖維製品價格의 取締規則을 公布即日(七月一日) 實施하기로 되엿는데 同時에 皮革의 戰時管理案을 斷行하고저 皮革의 輸出入制限、同製品販賣價格、取締及同配給統制의 三原則을 公布實施하기로하고 그中配給規則만은 來八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하엿다. 그리고 綿과 皮革은 軍需品으로서 不可缺한것이요 또 그供給의 大部分을 輸入에 期待하는關係로 軍需充足 輸出振興과 및 營業市場의 安全維持上 이를 實施하게된것으로 이것은 不得已한 政策이아닐수업다.

駐支獨大使撤還

獨逸은 압서 駐支軍事顧問全部의 撤退를 斷行하엿고 今回다시 駐支大使의 撤歸命令을 發하게되엿는데 이것은 獨政府가 蔣政權과의 外交關係를 解消하라는 第一步로 解釋되는것이며 西班牙內亂에 잇서서 人民戰線派와의 關係를 解消하고 프랑코政權을 承認하기로한 態度와 아울러 獨逸外交의 新動向을 示唆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는바이다 그런데 트라우트만大使는 歸獨한後 極東問題에 對하야는 中立的態度를 嚴守할것과 蔣政權과의 絶緣不可의 强硬意見을 開陳할것이라한다.

英佛共同動作

버틀러 英外務次官은 下院에서 一議員으로부터 日本軍이 萬一 海南島를 占領할境遇에 佛國에 對한 援助意思有無를 質問한데 對하야 答辯하기를 『英佛兩國政府는 各其駐日大使를 通해서 日本政府에 對하야 日本軍이 萬一 海南島를 占領하게되면 不祥事를 惹起하게 될 것이다』라하야 매우注目되는 意嚮을 闡明하엿다.

英米佛主力艦新協成

英米佛三國代表는 去六月三十日 英外務省에서 主力艦噸數最大限에 對하야 協議決定하엿는바 이것은 倫敦條約의 에스카렛이터條項援用에 依하야 協議한것으로 그結果 六月三十日現行主力艦制限 三萬五千噸을 擴張하고 새로 四萬五千噸으로 制限하는方式을 確立하고 그議定書에 各其調印을 完了하게되엿다 但備砲口徑만은 現行十六吋의 制限을 그대로 遵守하기로하엿다.

류大將脫出事件 英紙도大大的報道

【倫敦二日長谷川同盟特派員發】류시코프大將의 脫出事件에 對하야 英國各紙는 二日朝刊까지 半信半疑하는 態度이엿스나 其後 各方面으로부터의 情報는 事態의 重大性과 蘇聯側의 狼狽相을 傳하고 잇스므로 蘇聯政府의 公式否定에도 不拘하고 至今에는 隱蔽할수업는 事實로 認定하고 二日夕刊에는 各紙는 一齊히

日本은蘇聯의軍事機密을入手하얏다

는 題目下에 大大的으로 報道하고잇다 一方 류시코프大將事件에 關聯하야 蘇聯駐英大使마이스키·카ー한 參事官의 身邊에도 危險이 迫頭하여잇다고 傳하며 또最近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夫人으로부터 英國에잇는 友人에의 消息이 杜絶되여잇는 것으로보아 리트비노프夫妻의 安否도 念慮되고잇는等 本問題를 圍繞하고 英國朝野는 蘇聯事態에 對하야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리트비노프 夫人銃殺說

【왈쇼二日發同盟】波蘭通信社가 二日倫敦政界의 情報라하야 傳하는바에 依하면 蘇聯外務人民委員리트비노프氏의 英國人夫人은 最近蘇聯官憲의 손에 依하야 銃殺되엿다고한다 리트비노프氏夫人에 對하여는 從來에 여러가지 風評이잇서 今回의 銃殺說도 아직眞否가 不明하다

官吏逃亡防止次 蔣、嚴重訓令發布

【上海二日發同盟】過去一個年에 支那國內는 焦燥와 不安의 增大로 化하야 民衆보다 압서 地方官吏、官吏間에 逃亡하는者가 續出되여 各地方에는 無政府狀態의 混亂相을 現出하고잇슴에 驚愕한 蔣介石은 二日附로써 各省政府主席及 各戰區司令官에 對하야 軍人官吏의 逃亡을 防止하라는 左와如한 訓令을 發하야 地方의 秩序紊亂狀態를 暴露하엿다

即 各地의 行政官吏의 一切行動은 軍事行動과 密接한 連絡을 取하야 長期抗戰의 使命을 達成치안허서는 안된다 現在戰爭은 益益 激烈한바 日本軍은 奧地로기피侵入하야 最後의 決戰이 迫頭하여잇는 此際 軍民은 協力하야 軍政을 互相援助하는것이 絶對로 必要하다 이에 嚴重히 命令한다 무릇 官吏는 職務를 떠나며 職責을 放棄하고 逃亡하든가 그附近地方의 官吏를 絶對로 不許한다 또 當該區域 高級軍事長官의 命令에 服從치안는 者는 軍法會議에 絶附하야 嚴罰에 處한다

蒙古大會第二日

【厚和二日發同盟】蒙古大會第二日은 一日에 繼續하야 二日午前十時부터 各地代表提出案件을 討議하고 다시 德王의 人事가잇슨後 同十一時半에 散會하엿다

獨軍事顧問香港에

【紐育二日發同盟】紐育에 達한 漢口電報에 依하면 폰·파르켄·하우젠將軍以下 獨逸人 軍事顧問二十名은 마츰내 來五日漢口出發 香港行 列車에 便乘하고 獨逸로 撤退하기로 되엿는대 蔣介石은 二日 이들 軍事顧問을 爲하야 漢口에서 盛大한 送別午餐會를 開催하고 그勞를 謝하엿다고한다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黃河決潰에 맛드린 支那軍 揚子江堤防을 繼續決潰。

◇하늘을 向하야 침배앗기, 袖觸千里 旌旗蔽空式、連環計時節에나 所用될作戰。

◇敵機擊墜 一千機。一葉만떠러저도 天下의秋일진데!

◇류大將脫出入滿。어번은 불혹한次例인가?

◇무당은 제굿을못하느니 長官脫出에는 개·메·우도 束手?

◇藥材缺乏으로 醫療界에 赤信號。高利貸金式 醫師의 跋扈之秋。警戒는 마당허 어方面에서。

◇生絲時勢가 暴騰하니 農村에 朗報라고。

◇中間商人의 壟斷만업스면 朗報는 五臟、福音도될것지만。

日曜氣配

▲期米 一時水害恐慌으로 押目買物이잇서 目前强含 氣配小堅

▲株式 實過反動으로 目前眈入模樣이나 아직戰時高受할것으로 氣配不變

東新 一三六、七〇 大新 七七、三〇
鐘紡 一三三、六〇 滿重 八六、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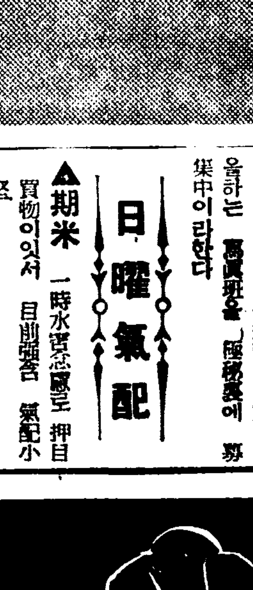
國府逆宣傳準備 國際反侵略大會利用

【南京二日發同盟】漢口의 外電이 傳하는바에 依하면 國府部內에는 第三國의 感情을 有利히 誘導코저 手段을 가리지안코 온갓逆宣傳을 捏造하야 逆宣傳에 狂奔하고잇는데 蔣介石은 七月十八日、十九日 兩日巴里에서 열리는 國際反侵略大會를 利用하야 無防備都市爆擊에 反對하는 運動을 提起시켜 同大會를 通하야 大大的 逆宣傳을 行하고저 計劃中이라고한다 그具體的 第一步로서 某某要人의 名義로 全世界各界有力者에 對하야 同大會에 派遣을 要請하는同時에 全力을 다하야 日本軍에 對한 逆宣傳戰을 하는 宣傳班을 派遣 計劃中이라한다

七月二日밤부터 四日밤까지 (三日間)
靑春座第二回公演
上演名劇一崔獨鵑 編案
椿姬 五幕
東西兩洋을 通한 戀愛悲劇의 最高峰인『椿姬』를 가장 理想的으로 飜案脚色된名劇을 靑春座의 總動員으로 力演케되엿스온 愛劇家諸賢의 이저서는안될 絶好의機會라할것입니다! 오소서府民館으로!
於府民館 料金 五十錢均一 每夜七時開演

七月二日밤부터 六日밤까지
劇團豪華船 凱旋公演
上演名劇ー李雲芳作
人生의 島 三幕五場
西北天地의 長期遠征을 마치고 堂堂凱旋한 劇團豪華船 全員의 勇姿에 부듸첫하시라
東洋劇場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林繁藏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 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 支店이잇合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中國名藥 性器强大靈藥
早漏立止
日滿商事藥品部
京城府光化門通 振替京城二七四五五番

朝鮮特許代理局
電光二四七一番
特許·意匠·實用新案·商標 出願·審判·辨理士

製油原料商
白胡麻都散賣
李東奎商店
京城府公平町七一 電光二七〇三
送料는 弊店이 負擔하겟사오며 數量은 百四十斤一袋以上으로 注文해주시고 時勢表를 下命하시면 即送하겟습니다

諸官省拂下品 中古加工品의 大安賣
不向品取替へ返金御自由

海軍省拂下品 黑色防水布外套 (黑厚ゴム引 二重仕立頭巾付) 特等品 四圓六十錢 一等品 四圓三十錢
本品は海軍省拂下の水兵着用の中古品にて極厚綾生地に黑厚ゴム引防水二重仕立肩大寸法防雨用最適品
鐵道省拂下品 黑防水布外套 一等品 三圓二十錢
鐵道省拂下品 紺小倉詰襟服上下組 一等品 二圓十錢
本品ハ鐵道省ノ拂下中古品ヲ加工シ丈夫ナル作業服用綿製品
鐵道省拂下品 黑作業服上下組 一等品 一圓六十錢
軍隊拂下 改造編上靴 (中古改造品)
本品は軍隊拂下中古靴を改造加工し、底は牛甕革に軍隊式金鋲を打込み丈夫完全品、非常時に大好評 足袋の文數を御知らせ下さい。
海軍拂下水兵型 黑革短靴 (中古改造品)
本品は海軍拂下の水兵短靴を改造加工したる丈夫向短靴にて大衆向(足袋の文數をお知らせ下さい)
海軍水兵短靴 特品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直ちに代金引替小包で送ります
名古屋市東區淸水町局前
御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大二一九番 振替名古屋一一〇二一番

綿·皮革製品의管理로 商店엔買占客殺到

「買占은非愛國的,一人一品主義로」

商工省商務局長,通牒發送

【東京電話同盟】면제품(綿製品)과 피혁품(皮革品)은 유사(?)한일과 철저하게 통제하야 제조와 사용을 제한하자 소비자들은 물품이아주 업서지기전에 사두어야 한다고 백화점기타 소매상점에 쇄도하야 물건들어 중앙물가위원회 제일특별위원회(中央物價委員會第一特別委員會)에서는 그대책을 협의한결과 이일오후 상공성시차상무국장(新倉商務局長)명의로 이사이에 면제품피혁제품을 사두려한것은 조치로한인이나 그곳에서 이가튼 비애국적행위를 박멸하기 위하야 한사람에게 한가지물건을 파는주의를실시하기바란다는통의 통첩을 전국각지대표에게 보내엿다

郵便配達夫怠業

【平康】 강원도평강에는 상업아침의 우편물배달이 몇시의배달시간까지에 배달이 되지안흐므로 일반시민들이며 사업자들은 극히 궁금히 역이고잇슴으며 약한시간이나 느저서야 겨우배달되엿다 그연유를알아보니 동평강우편소에는 시내 우편집배인이 여섯명으로 한달오십전내지 육십전을밧고 근무중 일금이 차다는말이잇서 우편소에서는 우편중에는 일반종을거든다 면것을 아직도 은취주지안흐며 불만을 품고 집배인들이 어떤모양는 거비파 단체운동하고잇는 것을 대구서에서 제포하엿다이 사나이는 동지들을 가지고 곳 대구에 나타나 전부터일던 전기가생과가던 어떤 상점을하고 엿든것이다

街頭賭博團의 首魁를逮捕

部下殘黨을嚴探

『마루이찌』도박의 수괴가 종로서에 붓잡혓다 어일오전열시쯤 부내 종로서원이 남대문통(南大門通)일정목칠번지 아페서 『마루이찌』도박으로 시골사람을 속이려고하던 경남(慶南)출생 조재수(趙在洙)(二□)등 세명을잡어다가 취조중인데 이들은 십수명이 엉당이되여 시골사람을 상대로 도박을 하다가 그들이 지게되면 그냥판도둑와 탈하야가지고 도망하는 장안의 불한당패로 동서에서는 잔당을 수사중이라고하며 피해액이 상당히 만흘모양이라고한다

京畿道內各郡 課長等을任命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도이내행정기구를 개혁하게되야 각군청 계주임(係主任)을 과장(課長)으로 개칭하는동시에 다음과가티 도내각군의과장임명을발령하엿다

▲高陽郡 內務課長兼勸業課長 宮野寬▲廣州郡 內務課長 小野坂

百餘人力車夫蹶起

料理집에서 잇겟소 券番에移管은실소

收入준다고道警察部에嘆願

『라씨』가생겨난뒤로 장안의인력거영업은 비상한타격을 바더서 점점쇠퇴하여지고 오직요리집에서 기생들을 실어오는데서 만가장 중요한버리터로 삼아왓는데 요지음에 조선권번 한성권번 종로권번등에 서 각요리집들에대하야 인력거영업장소를 자기네들의 권번으로 옴기게해달라고 교섭한결과거이의론이되엿다한다 그런데각요리집에서버리를하고잇는인력거영업자 백여명은 권번에옴기는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품고일제히 결속하야 종래대로 요리집에서 영업을 계속케해달라는 진정서를경기도경찰부에 제출하고 맹렬히반대운동을 계속하고잇다

그이유를 드러보면 요리집에서 기생한명을 태워와다가돌려다주는데 즉 왕복에 팔십전을밧고잇는데 이가운데서 십전은 인력거수리비로 떼여노코 칠십전을 요리집과 반분하야 먹는다한다 그런데 다만 이게사만으로본다면 요리집에 잇는것이나 기생권번에가서 잇는것이나 마차가지것지마는 요리집에 잇게되면 노는손들이 갈곰십보를옮시키는일이잇고 또는 취객이집으로 도라갈때에 타고가는일도잇스며 요금이외에 행하돈도주는일이잇서 근근히 각기오륙명식구의생활을 유지하여가는터로 만약기생권번으로 영업장소를옮기게되면 다만 기생태워가는것외에는 다른수입은 바랄수업게되여 매월적지안흔 감수를보게될염려가 잇다는것이라한다

橫領通信手

大邱潛伏中逮捕

전북임실군지사면곡산리(任實郡只沙面谷山里) 관촌(館村)우편소통신수 송원봉(宋元峰)(二□)은 지난삼월삼십일일 관촌금융조합으로부터 전북금조연합회에 현송하는돈 삼천원을 훔처가지고 이래종적을 감추엇스나 엄실서

轉向代表報告會

今日午後保護觀察所에서開催

來賓으로官民多數參席

동경에서 열렷던 사상전향자대회에 출석하엿던 권충일(權忠一)박영히(朴英熙)양명의 보고회는 금일오후한시부터 경성보호

漆夜에防空陣뚤코 假刑事두名突現!

「나는東署朴刑事다」……四圓角數奪去

방공훈련 경계판제하의 칠흙성가튼 경계망을뚤코 지난밤동대문서관내 창당정(昌信町)에 어인조 가형사가 나타나 일을마치고 집으로 도라가던 마차군의 지갑을 털려가지고 다라낫다 삼일오전한시쯤 고양군숭인면동묵도리(高陽郡崇仁面東墨島里)에사는마차부이석종(李石宗)(二□)이가 집으로도라가는길에창신정『까-드』아래를 지나려고 할지음돌연 삼십세가량 되여보이는 청년두명이나타나서자기들은 동대문서형사인데 어데를 갓다가지금오느냐?하며 몸을뒤저 지갑속에들어잇던 현금사원오십삼전을 빼아슨후 수사상 필요가잇다고하며 부근『타이싱젼』설유회사전으로 끌고다니다가 내일오전아홉시 동대문서에 출두하라고하며 수첩조이를떼더라고써주고 자취를감추엇다한다 『東大門署朴傑四三號』

피해자이석종은 두사람의태도가 하도수상하야 곳경찰에 무려보앗든바 가형사라는것이 판명되엿스며 소관동대문에서는 부내각서에수배를마치고 범인을엄탐중이다

空襲管制繼續

오늘밤일곱시부터두시간동안

防空訓練實施第五日

경성부의 방공훈련(防空訓練)은 저녁의 상황은 전날의 경계관제에계속하야 저녁일곱시에는 공습관제의 해제치아니하는 공습관제가 잇기로 되엇다 그러므로 어제저녁오후

▲東萊郡 ... (人事 lists: 勸業課長 ... 內務課長 ...)

아홉시에는 공습관제의 해제치 이번『어둠』것이고 오후아홉시에 는 경계관제의 해제가 잇기로 며 오시가는 철칙하게될터이다

저녁부터 두시간동안 전차자동차의 교통은 모두 정지될터이다

東署高等係서 李載玄을檢擧

서대문경찰서고등계에서는 작일 오후에시내모처에서 형사대가 나가서 양주출생 리재현(李載玄)(二□)이란 청년을검거해다가 극비밀리에 취조하는동시 계속활동중인데 내용은자세히 알수업스나 전기청년이파거중앙청년동맹의간부엿든것을 미루어서 모종대한 사상사건의탈로나아닌가하고 극히주목된다

曆

▲七月四日(月曜)陰六月七日▲干支 丁酉▲日出 午前五時十七分▲日南中 午後零時卅八分▲日入 午後七時五十八分▲晝間 十四時四十一分▲月出 午後零時廿五分▲月入 午後十一時五十九分▲滿潮(仁川)午前九時五十分 午後十時廿分

天氣豫報

豫報 今夜와 明日도 개엿다 흐렷다한다

全鮮도갓다

昨日 最高	二八度二
昨日 最低	一九度三
三日朝最低	一八度七
同 正午	二七度

色鉛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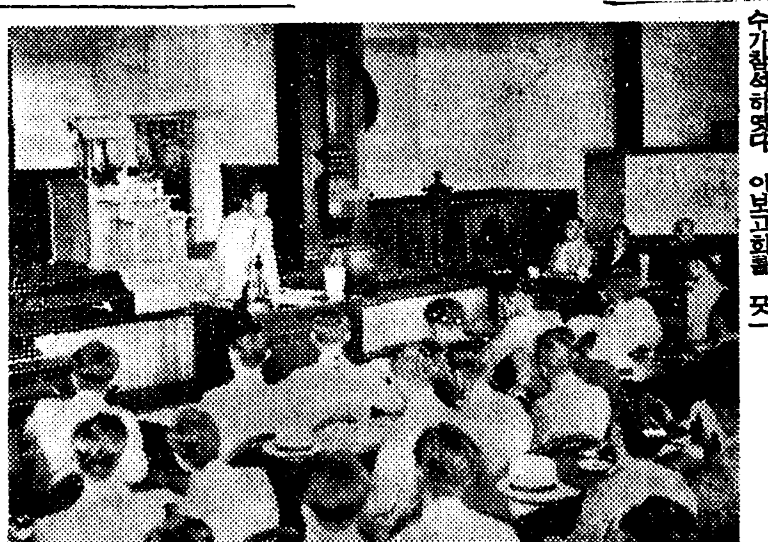
참을것은 참어야한다는것이 우리인간생활의개인의 체면으로나 사회생활의 일반적관계로나 가장 뜻잇는것이다▲가구교방공가리 공습관제의 경보가내리니 전시가는 캄캄한산곡의은 두절되니 거리는잠잠해진다▲이때 신중하여야할시민!각기자중하여 어두밤의 불편을 참고 훈련을 뜻잇게하여야하는데▲경계판제에 들어가면 자동차전차가 압헤등 밧줄가리우고소거름으로 천천히 가는데 시민이 더욱 주의하여야할때는 여때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차는 대수를 주리고 속력은 더 오니리어 승객은 더욱 부픈데 들창문까지 꽉꽉 닷치게되니, 전차안은 찌는듯이 무덥다▲물론 이만한 불편도 참어야하겟지만 전차내의 통풍의 도리는업는가 비상시의 이때에 전차과의 비상방책을 바란다

무서운『保聯』의눈!

夏節들며 漢江을監視

오늘某中等校生두명에注意

여름한강에 보도연맹(保導聯盟)의 눈이번쩍이고잇다―여름철이되여서 학생들의유흥과 행락의장소가 한강으로 옮겨짐을 따라서 이곳중심으로 여러가지 학생의풍기상 재미롭지못한 것이 나타날것이므로 보도연맹에서는 금삼일 일요일을기하야 감시원이 일제히한강유역을 경계하는동시에 용산서와영등포서에서도 서원을파견하야 보도연맹을도우는한편 사고를 방지하라고 활동중인데 삼일오전 열한시반 시내모실업학교삼년생 박칠석(朴七錫)(二□)―가명―외 두명의 중등학생이 후에는 비단 중학생만 아니라 보도연맹감시망에 걸렷스므로금 전문학생일지라도 학생으로서풍기상 자미롭지 못한짓을 하는자는 경찰에서 엄중처벌시킬방침으로 한강의 감시를 철통가티 하고잇다



少年窃盜團12名

武橋미를巢窟로한

本町署서襲擊捕盡

시내무교정 ... 서에 자펏다―근래 황금정(黃

赤銅色健兒의意氣!

訓練院頭를威壓

七個校精鋭八十餘名이動員한

全朝鮮中等水上開幕

本社後援

수상조선건설을목표로 사계의주목을총동원시킨 제일회전조선중등학교수상경기대회(全朝鮮中等學校水上競技大會)는 경성수영동우회주최와 본사운동부후원아래 마침내 금삼일오전여덟시부터 경성운동장『풀』에서 열리엇다

이날일기조차 명랑하야 출전용사들의 사기를돗다듬어주는듯 모교의영예를 목표로해엽치는 팔십여명적동색(赤銅色)건아들의 충천하는의기는 훈련원두를압하고도 남음이잇섯다 경기개시에압서서 엄장식이잇서 국기게양(國旗揭揚)에뒤어어황국신민의서사(皇國臣民誓詞)를 제송하고 동대회장 조영하(趙瑛河)씨의개회사가잇슨다음 동대회고문 김규면(金圭冕)씨의 축사가잇섯스며 선수일동을대표하야 양정중학주장 김재언(金在彦)군의선서가잇섯고 심판부 서동룡(徐東龍)씨로부터 경기에대한주의설명이잇섯나니 이로써 입장식을마치고 상배『메달』메도레―』로부터 경기의 첫막이열리엇다 어날엇간막을까지의 전적은다음과같다

(水溫廿五度)

【二百米메드레―決勝】 1曹成中學(李東漸 崔瑗鎬 姜善勇)四分廿二秒八 2養正中學(尹舜熙 張熙甫 金東洙)四分廿三秒五

【四百米自由型決勝】 ▲A組1金致主(徽文)六分四三秒六 2金在德(養正)六分四三秒六 3李俊(景福)七分二十九秒二 4禹淇元(曹成)七分卅一秒 ... 5京畿中學(朴斗鎭 卓永珍 張鍾... 徐東範)四分卅四秒二 4景福中學(全濟植 朴實琮 梁復玹) 3徽文 ...

【百米背泳豫選】 ▲A組1吳承澤(養正)一分二九秒五 2李東漸(曹成)一分二七秒二 ▲B組1尹舜熙(養正)一分三七秒二 3金秉國(徽文)一分三二秒二 2李義寬(徽文)一分三二秒五 ... 六分四八秒 3梁福玹(景福)八分四四秒一

【二百米平泳豫選】 ▲A組1李大五分一秒三 2金和鎭(養正)三分二八秒 4孫淳(京畿)四分一七秒四 3朴實琮(景福)三分四三秒八 ▲B組1趙龍仁(徽文)三分三五秒三 4姜善馨(景福)三分四六秒六 2金東洙(養正)三分二八秒五 3崔瑗鎬(曹成)三分二七秒三 4全濟源(景福)三分二四秒六

【百米自由型豫選】 ▲A組1洪福仁(培材)一分二二秒六 2金致主(徽文)一分二秒六 3許桂凰(養正)一分二五秒六 4趙相大(景福)一分二九秒五 ▲B組1姜善勇(曹成)一分二五秒二 2劉昌獸(養正)一分二一秒 3湯昌鎭(協實)一分二秒六 4朴斗鎭(京畿)一分二七秒二 【百米背泳豫選】 ▲A組1張熙甫(養正)一分二七秒二 2金淳哲

(徽文)一分四三秒三 3朴實琮(景福)一分五二秒二 4柳敏度(曹成)二分一六秒三 ▲B組1尹舜熙(養正)一分二三秒二 2李東漸(曹成)一分二四秒六 3金秉國(徽文)一分三二秒六 4孫淳(京畿)一分二〇秒

【二百米自由型豫選】 ▲A組1劉昌獸(養正)三分一秒八 2鄭規澤(徽文)三分二七秒八 3朴斗鎭(京畿)四分三分三秒六 4尹永七(培材)三分二四秒二 ▲B組1洪福仁(培材)三分一秒八 2吳承澤(養正)三分二五秒六 3李榮春(徽文)四分二五秒 4申麟澈(景福)三分四九秒

【百米平泳豫選】 ▲A組1趙龍仁(徽文)一分三三秒一 2金東洙(養正)一分三三秒九 3崔瑗鎬(曹成)一分二十六秒 4卓永珍(京畿)一分四〇秒八

【二百米繼泳決勝】 ▲B組1金濟植(景福)一分五一秒八 2金和鎭(養正)二分二三秒三 3金昌厚(京畿)一分二七秒四 十九秒八 2養正二分二二秒五 3曹成二分二一秒四 4京畿5景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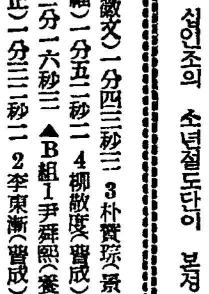
【四百米自由型決勝】 1金致主(徽文)六分一五秒五 2金淳基(養正)六分二五秒五 3金在德(養正)六分二五秒八 4荒木(學生) 6鄭琪元(曹成)7梁福玹(景福)

六分三一秒五 4禹仁德(徽文)5李炭(景福) 6鄭琪元(曹成)7梁福玹(景福)

一般對學生

陸上競技開始

朝鮮陸上競技聯盟과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共同主催의 第三回一般對學生陸上競技大會는 今三日午後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리엿바 어날午刊망은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百米】1金裕澤(學生)一一秒一 2韓鐘榮(一般)二一秒二 3中川(一般)

【千五百米】1崔俊植(學生)四分三三秒八 2白五鉉(學生)5韓鍾鶴(一般)四分 2吳東勳(一般)四分 3西崎(學生) 4姜明鎬 4二秒

【高跳】1李章元(一般)一米七大會新記錄 2蘇東南(學生)一米五(學生)3

椎八(學生)4荒木(學生)

朝鮮體育會

明日、臨時總會

朝鮮體育會에서는 明四日午後二時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講堂에서 理事會를열고 뒤이어同午後四時부터 同場所에서 臨時總會를열러이라는데 會員諸位는無漏參席하기를바라다하며 討議事項은 朝鮮體育協會에合流에對한 重要件이라한다

明大9 府廳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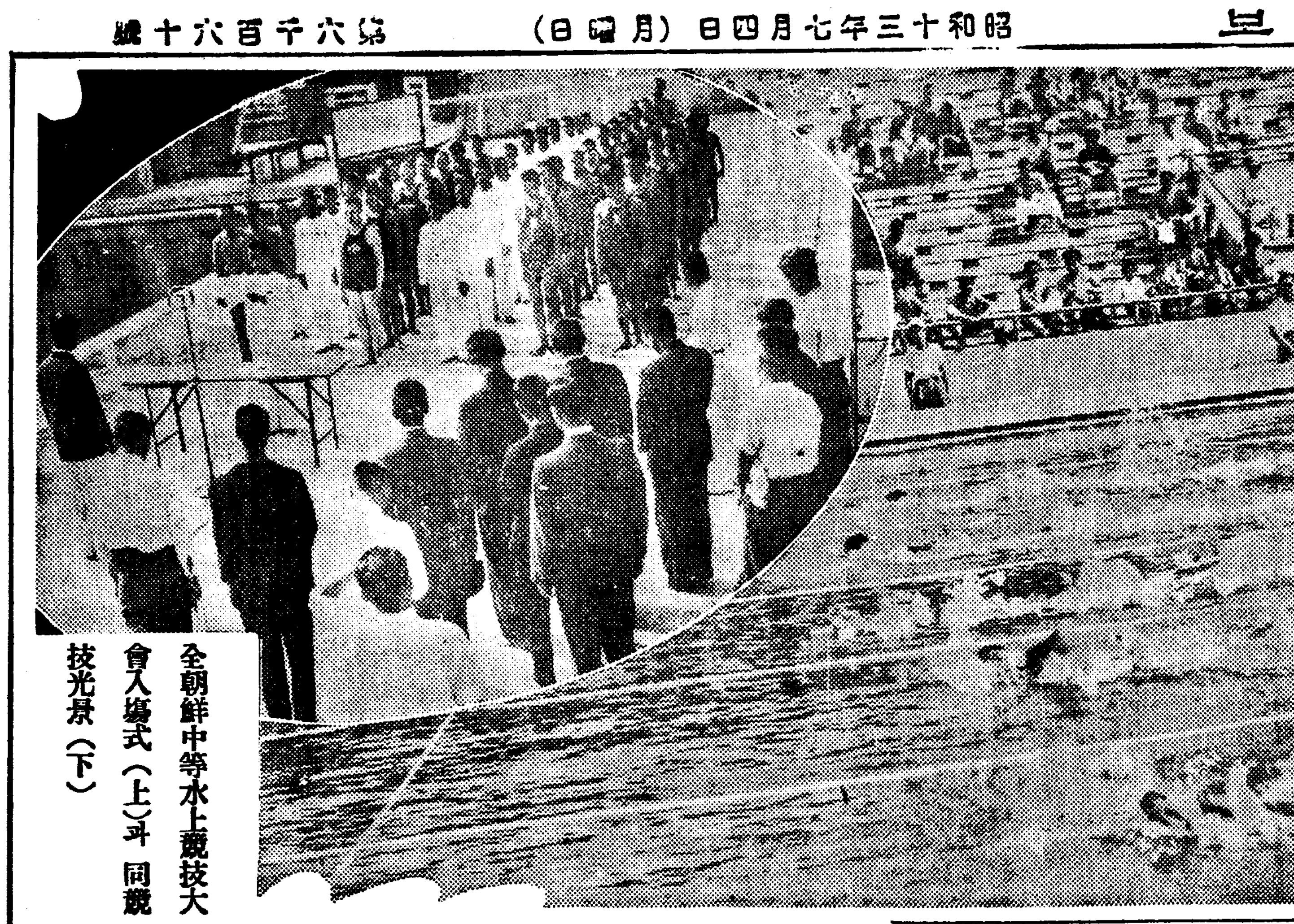
京日主催明大野球招聘戰第二日 對府廳戰은 三日午後一時三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古賀(球)千田 西畑(壘)三氏審判下에 明大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丸對一로明大連勝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明大	1	2	0	0	0	6	0	0	0	9
府廳	1	0	0	0	0	0	0	0	0	1

◇投捕=(明大)藤本―家親 (府廳)八島―伊藤

明日의運動

▲蹴球=OB聯合軍對專門校選拔軍第二回戰 午後五時半 京城運動場(觀覽無料)



全朝鮮中等水上競技大會入場式(上)과 同競技光景(下)

淋疾에 トリパアギン
京城昌信町
製造元朝鮮新藥合資會社
電話光三五四七

各社レコード蓄音器
各種樂器
東洋樂器店
京城府樂園町一三八番
電話光化門六九三番
振替京城二八〇八一番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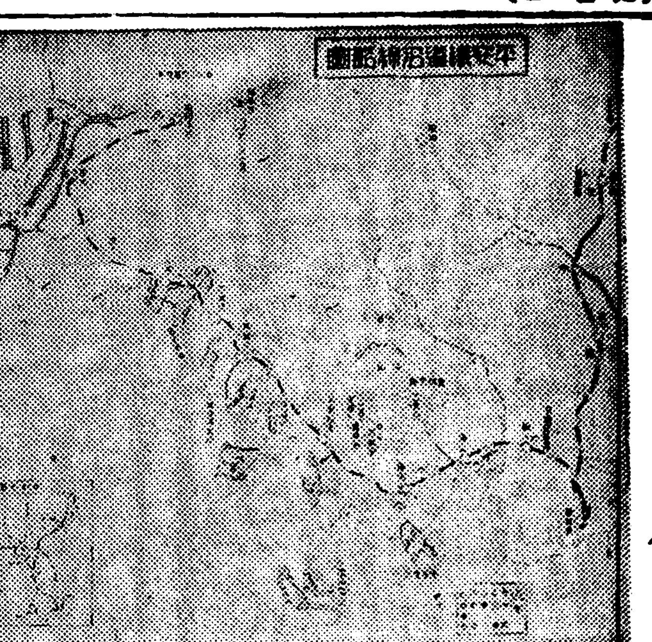
デリス殺虫劑
南京虫絶滅의朗報
デリス殺虫劑를連續으로三日만使用하면금방
南京虫은絶滅되고 安眠健康은益益增加함
仁川府本町三丁目
發賣元 合資會社 北島藥店
電話234·488

平壤名産
在來式優等燒酒
漢湖燒酒
地方注文도特히大歡迎합니다
平壤府鏡齊里十九番地
漢湖商會酒造場

理想의強力殺虫液
フマキラー 후마기라
大下回春堂

泄瀉에必히服用하시라
衰弱한胃腸健全히快復
固腸丸
定價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五十錢 金壹圓
京城樂天堂製藥株式會社

平南西海岸經濟線
平安鐵道遂竣工
鎭南浦龍岡溫泉間의第一區
今月十日에處女運轉


平安鐵道沿線略圖

【鎭南浦】불원한장래에 제이기공사로연장하여 평남서해안경제선이될 평안철도는 그제일공사로서 진남포와용강온천을 연결하는처녀열차는 오는십일부터운전영업을 개시키로되여 당일은 관민다수를 초대하야 성대한개통식을 거행할예정 이라고한다 원래이철도는 망량만여전(龐田)을중심으로 진남포와 용강온천간에부설되는철도로 기업가들의 주목을끌고잇든중 소화팔년이래 흐은 산업철도로 흥은영업(鑛業)철도로 다수기업가들이 수차나 출원하엿스나 재계의사정기타로 실현을 보지못하고 잇다가 소화십년 십이월 전천(田川)씨외 십삼명의 발기로 총자본금 이백오십만원으로 본철도부설을 계획하고 출원하엿든바 의십일년구월에 인가를어더 직시 회사창립에 착수하여가지고 시월이십삼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창립되엿고 소화십이년사월일일 진남포 용강온천간 철도의 기공식(起工式)을 한이래 절재고등으로 실로 천신만고로 십삼년 칠월륙일까지에 공사가 완료되게 된것이라한다 현재의 중역은 아래와가다고한다

取締役社長 齋藤久太郎 專務取締役 吉永武揚 取締役 田川常治郎 靑木健三郎 井上質太郎 朴興植 李鍾燮 監査役 鈴木孝太郎 立川六郎 田中三郎 支配人兼經理課長 百瀨波雄 技師長兼工務課長 和田調 庶務課長 山岸精雄 運輸課長 中輿宣吉 (地圖平鐵沿線略圖)

産業開發에拍車
이線이가진使命의가지가지

평남서해안의 경제선으로 중대사명을 가진 평안철도가 오는 십일부터 제일공사로 용강온천까지 영업을개시한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이제본철도의 장래성을 보건대 경쾌한『까솔링』기동차를 운전하여 진남포와 용강온천간의 일반여객은 종래승합자동차를 리용하든것이 전부본철도를 이용케될것이며 특히평양 진남포와 잇연선모든부락의 발전과아울러 인구가격증될 것은 물론 교통량도 증가될것이다 그리고 화물로는 용강군 귀성면(貴城面)진연천에서 생산하는 소금을 중요화물로하며 현재산만톤의 화물이수년후 구만톤에 달할것이 예상될뿐아니라 평과, 쌀, 면화등의농산품, 벼료, 농구등의농업용품의증가와 강서군학천동광장(東拓農場)의경지면적 이천여정보의생산미가유입의화물로 기대되며 고하며 다시 연장선에의하여 신안주까지 연결되는때는 평남서해안경제선으로 해안지방의 산업(海陸産業)의 개발조장에 공헌은물론 축조중의 청천강(淸川江岸)안롭하여 안주평야의 산미, 흑은안주탄전(炭田)의 발전과 한가지로 만포선과북철도와 련락케되면서 조선에잇서 임항철도(臨港鐵道)로써 실로 전도양양하다는바 구간거리와 역명은 다음과갓다

◀區間距離驛名

總延長三十四粁七分

◀軌道 國鐵同標의廣軌
◀旅客輸送 카솔링汽動車
◀貨物運送 蒸氣機關車回數一日五往復
◀賃金 鎭南浦、龍岡間片道八十一錢、往復一圓四十錢 (一키로二錢三厘)
◀驛名과區間粁數 鎭南浦(國鐵鎭南浦驛) 四、二粁―柳沙(停留所)―二、五粁―海山(簡易驛當分驛員無配置)―三、七粁―德洞(普通驛)―四、四粁―平南新德(簡易驛當分驛員無配置)―四、七粁―東廣梁(普通驛)―二、二粁―西廣梁(普通驛)―二、七粁―花島(停留所)―一、五粁―暗上(簡易驛當分驛員無配置)―三、九粁―貴城(普通驛)―四、九粁龍岡溫泉

傳票印章僞造코
叺六百枚를詐欺

【開城】개성부외 임한면채연리(?)양동(?)식(九)이란소년은 동리사는 송계동(宋癸龍)(三七)이라는 자를 [illegible] 엽(葉)[illegible] 이(二)[illegible] 양(?) 군수(?)[illegible] 외(?)[illegible] 어(?)[illegible] 그곳 일한면 월양리(月[illegible]) 조합공동판매소(叺共同販賣所)에서 전표를 위조하야 [illegible] 여미사합의 명의로 인장을위조하야 지난달이십구일부터 윤월사일까지 약산원어치를 구하야 가마니 육백오매를 제조하야 그중가장 [illegible]에서 어어대한 대까백여원을 사취해가지고 송거리에따우처 흐종이 돌다가 지난일일 개성 에피체되여 공문서위조 인장위조동으로 엄중한취조를 받고잇는 중이라한다

永川驛廣軌開通
祝賀會大盛況

【永川】저난칠월일일 영천역구내(永川驛構內)에서 영천역이전급광궤개통축하회(永川驛移轉及廣軌開通祝賀會)를 개최하엿는데 번영회장도비(繁榮會長土肥)씨의 개회사가잇슨다음 철도국장(鐵道局長)도지사(道知事)이하 다수

公金橫領新記錄
學校費書記로四十餘回犯行
咸興檢事局에送致

【咸南支社電】학교비서기가공금을 횡령한사건이 발각되엿다 함흥군 영흥군(永興郡)학교비서기로 잇던 박승(朴勝?)(二七)를 지난일일 함흥법원검사국에 송국되엿는데 그는 조회령의 죄명으로 송국되엿는 대 그는 그전에잇슨 농업공민학교(公民學校) 비롯대로 지불되는 구십여원을 횡령한것을 비롯하야 금년오월까지 삼년동안 사십여회에 일천구백여원을 횡령하얏다 한다 그는 [illegible] 외국사(外國士)가 [illegible] 유지들이보내준 [illegible] 전(錢)을낭비하고 [illegible] 벗는 [illegible] 사회적으로 [illegible] 어떠한동 [illegible] 에도 [illegible] 아 마지안는다고한다

劉興山氏特志

【平澤】평양거 유흥산(劉興山)

暴雨中에殺人騷動
犯行現場血海化
被害者는生命이危篤

【平南支社電】폭우가나리는 열일오후열한시경 부내평천대경(八千町)조박태명루아에서 살인소동이 일어낫다 평양부내 교구정(橋口町)서일번지 조진선(趙鎭善)(三〇)은 우산을쓰고 자기집으로 도라가는 도중 마즌편에서 오든사람과우산이 충돌되엿는데 서로 싸움이이러나 다투다가 어떤자는 돌연히 칼로 조진선의머리와목을 찔르고 다라낫다 조진선의머리와목은 평양서에서는 형사대를 비상소집하여 범인수사망을 우중에펴고 대활동중한결과 이일오전세시경에 가해자 부내유정(柳町)사번지 김석봉(金石奉)(二九)가 자기집에서자고잇는것을 엇(任)체 하얏다 두명이모두 칫중의일이라구는 사부정이검거하랫다 하지만은 피해자 조진선은 경동맥이 끈허저 피가 분수가티 쏘다저현장은 혈해를 이루엇고 생명은구하기가 어려울듯하다한다

赤痢患者가爆發
平壤府內에每日七八名發生
一般家庭에要注意

【平南支社電】최근 평양부내에 는 어질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잇서서 위생당국에서는 공고한 방역진을펴고 어질퇴치에 전력중인데 십실일간부터 이십구일까지의 십여일간은 매일 칠팔명내지 십여명씩의 환자가 발생햇고 환자의 거의전부가 동부(東部)와 서부(西部)평양에서발생하고잇다 발병원인은 음식물의 부패와 사탕갑시 벗산관계로 아이스케의(氷菓)을 만드는데 『차카린』을 사용하기때문에 어린이들의 위장을해처 설사를하다가 어질에까지 일으게한것으로 위생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허망하며 일반가정에서도 이런점을 충분고려하여 무서운병마의침범의 기회를짓지안토록 특별한주의가긴요라고한다

統制뒤에올摩擦
織造、鐵工業不安未免
慶北道、商議所에서對策講究

【慶北支社電】장기전하중국민의 재경통제는 가장긴급한사로써 면사(棉絲)까소링철재(鐵材)피혁(皮革)등의 완전한통제가 실시되엿는대 이로말미아마 종래의 자유경제기구에 일대변혁을 초래할것은 피치못할문제로 각지에서 폐문하고실업자가 상당히 날것은 피치못할사실이다 경북도에서는 이와가튼 사회적 문제에 선처키위하야 사회과와 대구상공회의소(大邱商工會議所)가 협력하여 어대책에부심연구중이라고한다

磐石事變功勞者
幼稚園設立計畫

【磐石】소화칠년팔월 반석현성이 수만의 토비에 포위되여 삼천여명 내선동포의 생명이 위험에 빠짐을 보고 결사로의진을 돌파하야 업근조양진에급보를 전하여 절립본대와 연낙을 취한 상용사와 수용동포구조결사대원어십삼명에게 조선총독으로부터 표창하는 뜻으로금일천오백원어 전달되엿다는바그 금액으로 반석현(磐石縣)유수하자에 약구십샹(晌)의 토지를 매치하엿는데 해토지에대한 경영곤난으로 분녹이 방매하게되야 약삼천원의이익금이낫슴으로 그 금액으로 상용사급 결사대원이 상당수의 영원저 긴접으로 유치원을 설립 하기위하야 간판 게자가 희합결의 한결과 토지의 천분이 곤난하야 만선식에 특별교섭 하얏스나 원래토지가 조치못함으로 원매자가업던중 상용사의 일인어고원정(高元成)씨가 책임을지고 회의측선에서 거성회까지 조직한공할동하게되엿슴으로 일반재주동포들은 그에게 칭송을마지안는다 한다

警官瀆職事件
豫審에

【慶南支社電】절도피의자를 연치하야다가 유치시켜노코 취조하다가 피의자를 죽여버린경남울산경찰서 정자(亭子)주재소순사―림원자(林元次)(二七)와 박맹렬(朴孟烈)(二七)양명에 관한독직사건(瀆職事件)에 대하야―부산지방법원 검사국최(崔)검사가그간취조를 하든바 지난일일오후세시경 취조를 일단끗내고 동법원예심에 회부하얏다고한다

前任實郵便所員
公金橫領코被逮

【慶北支社電】전북임실군임실면

新義州百年大計로
府區劃整理施行
六月卅日付로遂認可

【新義州】신의주백년지대게하에 시행하기로된 신의주부구획정리(區劃整理)사업은 지난삼십일인가되엿스므로 이일오전부청에서는 토목과장을 위시하야 각과장급관게직원일동이 부윤실에 모혀 공사착수에대한 협의를하엿는데 부의구획사업은 칠월부터 시작하야 소화십칠년삼월삼십일일에 완료할 오개년게속대사업이라한다

失眞한老人
割腹自殺!

【寧邊】지난이일아침칠시경 용진군부민면내동리이백팔십오번지 이농(李能孝)(六〇)라는 로인이 금이백식칼로 배를갈르고 창자를끄집어 내다시 창자를갈르고 자살하엿는데 원인은 수년전에 자근아들(?)이 죽은후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겻다는바 극도로 쇠약한끄테 발광된소치라고한다

二百圓의大窃盜

【丹城】산청군덕산시양조업자저병기(山淸郡德山市釀造業者邸炳基)씨는 지난이십일일에 금이백원을 진주세무서(晉州稅務署)에 위체로 부치려다가 그날밤마침일요일이므로 송금치못하고 동봉지(?)는 간의일에 부치려고 동봉지(?)안에둔 꼿이업서 이에놀난그는 안해에무러보앗스나 역시 아지못하므로 절도의소위일줄알고 곳당지경찰에게 보고하야 그범인을 조사중이나 아직것 그단서를 엇지못하엿다 한다

咸南號命名式
二日盛大히擧行

【咸南支社電】함남도 일배육십만도민의 총후의 열성의 결정인애국기 함남호 해군기(海軍機)의 명명식은 이일오전열시부터○○에서 거행되엿다 이날식장에는 해군대신 대리로 진해요항사령관유지(有地)해군중장을 비롯하야 각군도회의원 군수 경찰서장등 남녀중등학교생과함께 무려오천여명의참집으로 공전의대성황을 이루엇다 순서에따라서 명명식의 행사를 한뒤에 남총독의 대리로 휘게파장(勝本)의축사 아도함북지사대리 삼십칠련대장의 축사가잇는뒤의 소화생대표로 금정(錦町)소화교의 육년생 오병헌(吳炳憲)군의 장도를 보내는말투소녀의 회화봉정등이잇섯다 열한시 세천(細川)함남도지사의 발성으로 천황폐하만세삼창을 우렁차게 부른뒤 축하의뜻으로 와잇던 여섯대해군기의고동비행이잇섯다 열시반여사려 식전을 무사히 마치엇다

어린이들의樂園
前七星園에다小公園

【慶北支社電】대구부에서는 공원이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오든중이나 예산관게로 어찌할도리가업서 장차다처을 연열시기를엽두고 일시의 응급책으로 전『빼비골루장』이든 공회당뒤에잇는 칠성원을 개조하여 아이들의 유히장으로 결정하고 국만(菊萬)과 향자로 소동물원을 설치하여 공작, 황새, 부엉어, 앵무등의새와 원숭이, 곰, 여호, 오수리등 소동물을 살천여원을드려 동경상야동물원에서 구입하여다가 사일부터 일반에게 관람한다고한다 더욱 개관시간은 오전열시부터 오후열한시까지며 입장료는 소아이전 대인삼전이라고한다 (사진은 칠성원 유히장의소풍물)

長篇小說
林巨正 【128】
洪碧初 作 金熊超 畵

피리 (九)

정생원 다음에 평산선비 하나가 잡혀왓다 돌하례 대땅에 꿀어안처서 대청우 교의에 걸터안진 서림이를 치어다보며 자기는 말한마디 잘못한일이 업는데 무슨죄가 잇는지 죄목어나 알어지라고 말하얏다 『네 얼굴빼대기를 보니 엉반확(行擔)만이햇슬께다』 그죄가 죽어두 맛당하다』 서림이가 죄를 얽거서 얼룩장을 노흐니 그선비는 해화한 일 업다고 누누이 발명하고 또 살려달라고 구구이 빌엇다 『용서업시 죽일것이로되 인생이 불상해서 나냐허 불기께 나 때려 용서할테니 그리 알어라』 『유죄무죄간 때리면 맛는것이 맛겟습니다』 지만 이왕 마질바엔 형문을 맛겟습니다』 『상사람이면 혹 형문두 치지만 양반은 반드시 볼기를치는것이 우리의 법이다』 『그럼 할수잇습니까 볼기라두 맛겟습니다』 서림이가 졸개들에게 형틀과 태장(笞杖)을 내노라고 분부할때 꺽정이가 뒤에서 『여보 서종사 볼기는 다 무어요 그놈두 먼저놈가티 목비게 내주오』 하고 말하야 그선비도 마친내 여러졸개들에게 끌려나가서 망난이구실하는 졸개손에 머리를 너케되엇다 그선비뒤에 몽산선비 둘과 또 평산선비 하나가 차례로 자펴와서 대개먼저선비와 어슷비슷하게 애걸복걸하다가 모두 참혹한 죽엄들을 당하엿다 정생원부터 여섯재번에 자펴 오사람은 한생원이엿다 졸개들이 먼저다섯사람과가티 잡아꿀리라고하니 한생원은 떡 버티고 서서 안꾸려들지아니하엿다 『꿀려 꿀려안처라』 『꿀려안처라』 『꿀리라신다』 호령소리 지대답소리 바로부시무시한데 한생원은 꿀려안치라고 애쓰는 졸개들을 뿌리치면서 『양반이 죽으면 죽엇지 도둑놈아페 무릎은 꿀지안는다』 하고 소리질러 꾸지젓다 막된것을 여럿에 약한선비 하나라 한생원이 마침내 서잇지못하고 꿀리지아니하얏다 『그걸 꿀리지못한단말이냐』 하는 호령을 듯고 졸개들이 곳 다리를 분질러 절치라고드니 한생원은 뒤로 벌떡 들어누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질을 처다 한생원이 한사코 꿀어안지안는것을 서림이가 보고 『그대루 일으켜 안처놔라』 하고 분부하야 졸개들이 한생원을 잡아일으켜서 막대로안께 두고 한여프로들 물러섯다 『양반고집은 쇠고집이라더니 두 바랑이라 고집이 무던하구나』 서림이가 놀림조로 말을하니 한생원이 눈을 부릅뜨고 서림이를 똑 바로보며 『이놈 네가 누구를 놀리는냐 내가 너이가튼 도둑놈들에게 놀림바들사람이냐 너이가 나를 죽이기는 할지라두 놀리지는못한다』 하고 호령하엿다 『그러케 기쓰구 발악하지 말구 꿀어안저서 비러라 빌면 목숨을 살려줄테니』 『대체 빌긴 무얼 빌란말이냐 우리가 너이에게 빌일이 무어냐 우리의 친구하나가 꺽정이를 대적눈이라구 또 서림이를 꺽정이의 창귀라구말햇다구 우리를 잡어다가 이욕을 보인다니 그때 꺽정이가 대적눈이 아니냐 서림이 어 아니냐 설사 그친구의 말이 꺽정이의 창귀노릇하는놈지안흔것을 잘못이라구 하기루서니 우리가 너이에게 빌일이 무어냐 그러구 너이가 무도한적놈들에게 죽으면 죽엇지 살려줍시요 살려줍시요 빌사람이 누구냐』 한생원의 말이 끗나자마자 꺽정이가 『여보 서종사』 하고 불러서 서림이가 교의에서 나려와서 꺽정이를 향하고서닛가 『그사람은 사내요 그사내는 내가 살려보내겟소 이때까지 잘못햇습니다 살려줍시요 소리를 하고 욕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몸에 이제 우리는 몸뼈이겟드니 제 족시원하오』 하고 꺽정이가 말하얏다

醫學博士 西野入直澄氏御推獎
富士胃腸藥
定價 金五十錢 一圓 二圓 參圓五十錢
發賣元 富士屋藥局 (京城生化學硏究所製)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電本⑨四七七六番
胃腸病으로苦痛하는분은最後的으로 服用하라!
漢藥과洋藥과科學的으로結合케한高貴胃腸藥으로서如何한胃腸病이든지征服할수잇는靈藥입니다 一次最後的으로試服하시라! 試藥進呈要三錢切手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夏節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 잇슴

無線電信技士 短期養成 補缺生募集
夜間六個月(七月ヨリ十二月) 入學資格小學卒業以上滿二十五才迄ノ男子 入學案內送呈す(郵劵三錢封入を要す) 最好期を逸せず無線界雄飛せられよ 就職確實
京城府城蓬萊町一丁目 朝鮮無線工學講習會 電信鐵道諸官署 無線技士大不足 電本局三〇六五 本局七〇〇九番

第五期 生徒募集
奉天 大滿測量學院
▲三個月短期卒業 ▲出願期七月二十一日 ▲考査日八月四日 ▲開學日八月五日
▲科目 平板測量、高低測量、各種測量、計記製圖、製圖、珠算、滿洲語敎授
▲學則請求時要三錢切手 ▲奉天市平安通十二番地 (電話三—五七二〇振替奉天一一九六)

誠意를贈하는中元
事變下에適合한 實質的 贈答品
資生堂石鹼
新美術罐入
美麗한對斗紙付六個入
九十전
品質조코、香氣조코 버릇잘입고……

003102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獎
ノーシン
머리가몹시아플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조치못할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各處藥房에도무러보십시요
定價 四包入二十錢 七包入三十錢 十三包入五十錢 二十八包入一圓
此商標에注意하시압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中元! 銃後에適合한 誠心드린贈物!
あけぼの印 オーロラ印 さけ 연어 罐詰

에튜-드 論章

前衛運動의 提唱

—朝鮮畫壇을中心으로한—

東京日本美術學校 趙五將

어떤는 裏面中인 前衛藝術論에서부터 提唱되어잇다.

【序章】 前衛世界에、한가지 새로운 問題를 提示하고 實驗한 前衛運動과 朝鮮畫壇의 大家諸氏(?)에게 그答案을 要求하며 아무解明도 口實도엇시 그들은 이問題를 解決해주지 若히거정스럽다.

前衛運動의 史潮가 일어낫의 史實를 벗자고다시 새-抗爭의 코-쓰를 옷겻때 아직것잡고대에서 그대로 安綜된(?)渾然의 世界를 探固하는 夢遊患者가톰 前衛의 巨匠들이 만흔朝鮮의美術家를 가장슬픈 運命의 아들이며……어따.

封建的 歷史를버리고난지 오래이면서도 그時代와조금도 다르지안흔 現狀을 갓게한 原因은 무엇의罪이며 누가비難될일까—

여기에 먼저 번 이들에게는 責이잇다.

그理由!—그리고 이러한 意思를가진 內部的 原因에 對하야는 나도모르게 先輩諸氏에게 서슴지안코 맷끼고 십다.

×

다시 도라가 本問題를 追究해보기로 하자— 『새로운』問題—이것은 누구나 다-말할수잇는것이다. 至今것接觸치못한것을 對할때 새롭다는 稱語를比한다。그러면 滿壇에 내놋수잇는 새로운 問題란무엇일까?

이『새로운』은 朝鮮의現畫壇에 만내놋수잇는새로움이다。이때 寶明한(?)先輩는 분개하실지모른다 事實이니까 하는수업지안홋가?분개하기前에 좀더넓은觀野로 外國畫壇을보라.

畢于 피카소가 다시 새로운 畫派 繪畫의 두잔르를 빗끄러매서 姉妹藝術의새-境地를開拓한지 이미오래인 부르톤이 지금은 第三畫論를쓰써서 超現實主義繪畫의 步調를 새로세웟고 다리-가 變形的精神分析繪畫論을 追求하고잇고 마그리트가 잇고 렌스튼가잇고 미로가잇고에—그래서 그들이提示한問題는

生活에서 生活로옴기며 探求에서探求로 解決의途程은 언제나 다음의新目標를차고 든다 이러한 世紀的轉期의 革命을目睹하면서도 우리의畫壇은 잠자고잇다。

어것이 옷지못할 悲劇이아닐까。

國家時有한 危機되高騰을 武器가티자랑하는 그들은 假雄王義的韓淸藝術을 固執시키며 自己네들만의 開鎖社交(?)을 하고잇지안흔가。

어떠한 學說한 業績을 學取하고 成長하는 젊은 新銳의 展望卷—그들은 우리와 가튼 會를뚫在할이다。

美術學校、研究所하나 變哥한것을 볼수업는것을 보와도알수잇다。

이點에 그들은抗明할것이다。그러면다시 그들의 弊害한것을 생각하자。내記憶이 틀리지안는以上 아마昨年도 五、六月頃일줄안다。牧時會라는名目아래 所謂 同人展이 和信가리리-에열리엇다。이때 朝鮮日報紙上을通해 鄭玄雄氏가 新鋭作品이잇다 作者이들미려 氏字를써못낫다는데서 諸氏(一部다)는 분개하야 前衛藝術가저을 알어잇섯다는 말을들엇다。 [illegible]

—前衛가가저야할 [illegible]

어떠한 先輩畫이 기시가운데 昨日에이르러 [illegible] 金[illegible]氏가 생각한바잇서 [illegible] 이 놀고잇는 朝鮮美術에 몃몃 젊은[illegible]모아 來日의[illegible] 美術의 [illegible]주고잇다고한다。

前衛美術家氏여! 다시고개를 돌려보라! 이러한것을 [illegible] 보고 自畫的生活([illegible])을 [illegible] 하지안흘수업는 우리의 괴로움을누구가아는가?

우리들의 悲劇이 아니고 무엇일까?

×

여기에 나는 서울리 다시붓을 꼿치놋고 etude의 問題를 試驗키로하자。

etude란 音樂用語다。練習을 위하야 作曲한曲을말한다。그러면 어떠한 理由로써 美術에까지 使用하지안흐면 안될까?

이點에잇서서는 二十世紀의 表現主義問題와 前衛運動의 科學的問題가 내가말하는 그以上으로 明確히 解答해주고잇슬것이며 論議되고 잇는가운데에서 [illegible] 出發할수잇는結果다。勿論 다른部門의 用語를 繪畫의世界로 引用할때 問題는 달이 [illegible]되는것이다。

여기에 다시 科學性을云云한다고 [illegible]것이다 그러나그들은 前衛藝術을 盲目的으로[illegible]惡한 가장低劣한 分子이므로 外觀하는수밧게 업다。

그러면 etude 問題를 알어슬 사람은 멧치나될까。不過 全部를 通한萬分之一도못될것이다。

이分野에잇는 論家의 [illegible]는다면 몃몃 밧게안된다。내가 아는 程度로 가장優秀한作家를 들면 東京自由美術家協會會友로 잇는 金煥基氏 吉鎭燮氏 李範承氏 金秉麒氏 劉永口氏等이며 서울畫壇의 唯一한 存在인李秉滋氏 그리고 再昨年度에個人展을열고 昨年度에 第一回極現社同人展에 出品하얏던 李揆祥氏 이외에도 몃몃동무가 잇스나아직것 作品의提示되지안흔限問題할수는업다。

이들은벌써 『피카소』의世界를 차즈라햇고 『부르톤』 에렌스트、 만테이、다리』의 位置와트크닉을 工夫햇슬것이다。 『쿨나수、오므셋』 리프·쿨나수、 포-르·크랍、아브스트·데트아-르等의 畫派를 硏究하며生活하고잇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생각안흘수업다。 (前衛運動이란 時代의 革命이다。)

언제나 가진生活에 固執하야 明日의 探求와 眞實한研究를가저볼라지안코 單只 現在의흐름에 狀態에 빠지고만 [illegible]이여! 새로운意味에 黎明期를알은 朝鮮畫壇에 熱烈과努力을 주고 십지안흘가? 오-次問題는 우리

[illegible] 도!

自己[illegible] [illegible]하는 젊은 [illegible] 저지안[illegible] [illegible]를 [illegible]하기어렵다。 etude를 위한 作品이다—가리 생각하고 來日의科學的[illegible]에서 [illegible]가要求한、[illegible]을 생각하며 作品의[illegible]으로써 우리를

[illegible]

×

[illegible]스크린을 처다보는 [illegible]— C·U한主人公의 [illegible] 카메라 [illegible] [illegible]에보고 사진에서 [illegible] 각해보라(어째고 [illegible]中心으로)

그러면 [illegible]의問題는 [illegible]이다。

×

[illegible] 그러나 이것을[illegible] [illegible]이라도 무엇이[illegible] [illegible]的으로 [illegible]하자。

(詩) 조올지마라

中東 李尙鉉

溪風이 훨쩌르고 간뒤
衛國엔
陽光에만 양생하고
놉고 나즐을 가리지 안흔
몬지의 化粧을은
三朋의 가장 참됨이 아니냐

보리바레 넷이야기
꿈에서 꿈을 깨인時節
솔꼬망에 피도 마르지안은 畜子를업고
허리의 띄를 세 네번 고처매며
貧困한 밭고랑서 우러나는
방아소리의 記憶이 새롭다

갈비 때만 조롱 조롱한
가난한 젓가슴에도 피는 생생하나
보리를 따듬다
키를 멈칫노코
먼이 하늘을 처다보는
눈瞳子의 으아한 표정을안다

흥어지 어미소 찾는 그 숲풀에
寒村의 긴—하로는 暮을닷고
참국을 노코
모기머게 甘藷잎을 집어넛는 순봉이의 감사함을!
모다불에 멀며가는
모기떼의 행렬을 아느냐

버들 또지다
발등을 찍히거든 너는 아예 落心을마라
그리고 소스랭이 꼿을 치원도마타
너에게는 눈깜을 칠듯한
醜聞이 엇스리니
구부려 지지 안흘 버떠힘을 가저라

—六月十六日 비오는밤—

마음의 愁鄕

中東學校 仁南[illegible]

한울에높은 희구름을 처다볼때마다 멀ー고먼東海바다를 갈치는 그곳이 세삼스러히 그리워진다。海灘에 닷처오면 다시도라가는 힌물결 소리에넘이새며 바위에서우는 갈매기울음에 날이저무는 東海바다 白砂場이 갈수록 그리워진다。

松林속으로 보이는 힌모래밧 그곳을거닐다보이는 바다물에소사나온 푸른바위에 부디치여께여지는 물결이 아직나의 눈에 가득하다。산봉에서 태여난내가 처음으로 東海바다를 본것은멋해전 修學旅行때엿다。

그동안 꿋꾀는봄과 잇지는가을 몃번인가 나를두고 흘러갓것만 보이지안는 하늘에서우는뻑국이와 [illegible]한노래를 들을때면 도꼿떠러진 아카시야 綠陰이든 會그늘을 볼제는 다시나는 그時節이어데가히追憶된다 한天使와도갓고 나의 마음의映像과도가터 푸른 하늘을놓지고 自由스러히 노래부르는 힌갈매기를 볼제、나의마음은 울떵거리며나의가슴에 피가끌어오른다

바다저쪽 바위에 부디치는波濤소리는 壯嚴하고아름다운 멜로디—와갓고 바다의 香氣를 품은 西風이 松林에 부디칠때 自然의 노래가 내귀에들여왓다

나는지금 바다의 숨잔呼吸을 허드르며 [illegible] 海邊을 허메인것을 記憶한다。

맑게고여잇는 잔잔한 물속에 가려안즌 힌조개껍질을 건지며 기뻐하던마음을 나는사랑한다。

모래바를 거닐며、또다시거닐어 나는마음껏 바다의 香氣를 드러마시엿다。

모래에 파뭇친 紅綠色빗나는 조개껍질들이 빔실거리는 물결파속삭거리는 옛애기를 나는들엿다。그秘密을 아무에게도 압이기실코다만 나혼자만 못고시펏다。

모래언덕을넘어 松林속그늘 漁船에 만히모여잇는 그곳에 조그마한배에 홀로안저 어둑한바다 저쪽구름은 水平線을 바라보고 나는記憶한다 양떠가든 힌구름에는 가을太陽이 빗나는 한울에는 아름다운 꾸나라와 고요함와 音樂의宮殿이잇고 自由와和樂의 「유토피아」가 나를기다리는듯한 感想을 바다여 나는 偉大한自然에 [illegible] [illegible] 나의모든悲哀와 슬픔이 [illegible] 모래바다 메여잇는 배들을어 한길되는 노를저어 [illegible]和의살은 고요한나라로 흘러가고 시펏다。

偉大하고 神秘로운바다 [illegible] 다운沈默의바다! 기쁨과 自由의 바다엿섯다。

거룩한海水와 구비치는 大洋 바라보고잇는 그때 그는 마치 넓일흔 사람이엿다。

나의가슴에 [illegible] 소사나오는것은 삶에對한 기쁨이엿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더 探求하고 시픈慾望이엿다。

그바다를 나는永遠의無形한詩로읽고 매일로가리워진 한幅의 그림으로 보고시펏다。

오늘도 記憶에나믄 희구름은

六月의 바다엔 生活의조깅을바더허떠거리는 漁父들의 자근배가떠잇슬것을 나는想像해본다。낙시에 걸린고기비눌이 銀버추로빗나드시 바다의 印象이다시나의가슴에 사못친다。

바다에서 태여나 바다에서크고그리고 늙어가는 漁父들에게 것이다。 배를저어 도라오는길에 暴風雨風에나 다시자기집으로 도라오지못하는 바다의사람들을 나는생각한다。

虛無한 人生에 삶의悲哀를안고한조각배와함께 물속으로사러진그네들의 빈집엔 울엉에맥이푸러진 家族들이 먼-죽엄의바다를 바라보고 혹시나 도라오지아니할까 날마다 가다림것을 나는도다서 생각한다。

漁父들은 언제나 바다의恐怖를 [illegible] 바다에 그 [illegible]을 만히볼수잇는때에는 [illegible] 그러나 그것은 [illegible]에 지나지안는다。

[illegible] 漁村의土壤이잇고 그동안에는 [illegible]가두서너마리 매달려잇슬것이며 [illegible] [illegible] 나는 想像한다。나는 [illegible] 사라지는바다의 사람들의 굿세인 意志에人生의 敎訓을는껏다。

지나간봄을回憶해보면 그날이 엇던날이엿섯는지 이저버렷스나 바다에 臨한亭子에안저서 [illegible] 점심을먹고잇슬때 마을아이들이 奇異한눈초리로 우리들을 바라보고잇섯다。점심을 다먹었을때 [illegible] 米飯을 내던지니 [illegible] 그들이 그것을다투어 [illegible] 업는양이 지금도 나의가슴을에태운다。

그들은 그곳에는 밤하늘을때여떠으며 코를 훌적훌저 드러마시엿다。지금나는 그아이들이 그리워진다。나는먹던밥을 [illegible] 업는第一작은아이에게 아무랍업시 내밀엇다。

어제나는다시 바다의밤 情景을 想像해보자。

바다에달은 밤이면 人魚들의 노래를드르며 닥처오는 힌물결에 배를띄워 萬頃蒼波노를즈어 물결러 가는쪽으로 未知의世界를 向하여 떠나고십다。달빗을 바더 빗나는아름다운바다! 그 옛날人魚들의 로맨스를 머리에 그려본다。하늘에는 반짝거리는 銀河水가잇서典雅한 멜로디-가들려올때 人魚들은 그蒼白한 肉體그몸에감을듯한 綠色의진머리칼을 느러터리고 옹지기눈좀을 나는머리에그린다。

그것은情熱을숨긴貞淑일것이다。 달이소리업시 비친다。나의꿈은깨엿다。—

나는그아름다운꿈의 꼬리를마옹기괴새이고잇다。

만일그곳의 나라로 간다면다시人間의 世上으로 도라오지아니하리라。그리면 나는모든 沟東도 밧지안코 무서울고 爭鬪만흔 人間을버서날수가잇슬것이다。

永遠의沈默을 지키는바다속내가 떠나간곳을 사람에게알려주지아니할것이다

나의이와가운 마음과 바다의 豪美的情緖를 말할수잇는한마디의 노래가잇다면 달이 西天한울에사러질때까지 이바닷가에서 노래를불러보고 십다

投稿에對하야

募集規定보다 枚數를 超越하는原稿가 매우만허젓습니다 이點은 投稿하는분들이 特別히注意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夏期休暇도 아프로맷칠이업습니다 各學校에는 여름을利用하는 여러가지 計畫이잇슬줄압니다 假令 名勝地探訪이라거나 登山、캠핑、그外에도學習을떠나 自然과 더부러 親하야 새知識을 어드랴는 計畫이잇슬줄압니다 이런것을 具體的으로 알여주십시요 學生作品係

콩트 C君과우리집

徽文中學 鄭炳勳

C는 끔직이두 죽구납분것가린는데서 여간해선 사람하고 사귀지를 아니하엿다。나하고는 어쩌엇인지 친하얏지마는 C가 작년까지 학교에 단길적만 하여두 한반에서 가티 배우면서 일년 열두달 동안에 그와 한마디두 말을 하여보지못한 생도가 만핫다。

C와내가 교제를하게 된것은 그의집과 우리집이 퍽 가까워서 매일 학교에를 가티 단기게 된데서 부터 시작하엿다。허나 그것두 내가 사람됨이조한튼 까닭이다。무슨일이고 나도 C와가티 꼿까지 못어덴다면 아마 지금쯤은 서로 말도 안코 만나도 외면을하고 지낼것이다。 나는 C와의 交誼을 될수잇는대로 피하엿다—사실어 交誼을 피한다는 것두 C와 내가 무슨 일을 가지고엇을때 내가 줄이울코 C의파에 물러도 C는 무슨 본길을 잡어서라두 어떠케 핏태를 세우고 동네방네가 다떠들석하게 떠들어서 그여히 제주장을 세우고야 마는데는 못당한다。

C는 학교에 단길적부터 퍽 박식(博識)한 애엿다。혹 C는 어 빼식 하다는 까닭으로 적석어 여러곳으로 허러저서화업(學業)에 방해가되여 학교를 중도퇴학하게된 간접의 원인이 아닌가한다。내가 짐작컨대는 C는 어릴때면 갑(甲)을 할라고하면 을(乙)을 잇지못하고 을을 하자고들면 병(丙)이 마음에 걸리는 격으로 C는 무엇이던지 한가지 꽉 결정하야 실행치 못하는것 가텃다。

C는 작년 봄에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 자기백부(伯父)의 집에 내려가서 두어달쯤 이나 잇섯다。그동안 무엇을 하엿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요새와서 C의 하는말을 종합(綜合)하야 미루어 보건데는 어리라할 무순일을 하려두어코 활동하엿든게로 비빙 도라다니며 논모양이엿다。물론 그당시 C는 나에게 편지한장 안햇다。그리고 C저의 집에도 엽서한장 안보냇는지 C의어머니가 나를 보면 C가 지금무얼하느냐고 못는 때가 잇섯다。

그후 C는 돌연 상경 하엿스나 三三일 후에 도로 업서저 버렷다。

얼마뒤에 편지가 왓대데 영회순업(映畫巡業)을 하다고 하며 저번 상경 한것은 거기에 관한 준비 때문에 라고 그랫다。영화순업이 무엇을 하는짓인지 똑똑히는 모르되 여하튼 각지로 도라다니는것 만은 사실 가텃다。

이러지 한 서너달 동안 나는 C의일을 죽 이저버리다시피 깜박 모르고 지냇다。

여름도 끄틀 막고 선선한 바람이 불러오는 어느날 우리집 대문 바게서 누가 나를부르기에 나가 보앗드니 거기에는 C가 서잇섯다。C는 벙그레 우스면서 손을 내밀기에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여 주엇다。나는 그를 빙긋히 바라보며 C의 얼굴만 처다 보앗다。

그전에 그렇케 히고 탐스럽든 C의 얼골에서는 살이라고 생긴것은 차저볼 도리가 업고 거기다 새까마케 끄렷다。

나는 C를 내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지금껏 지내온 이야기를 듯고시펏스나 보시 그집부터 나는 C를 우리집에 다리지 안햇다 그것은 C가 드나들기에는 우리집이 너무나 좁고 더러운때문이다。(사실C네 집은 우리집에 비하면 상당히크고 조촐스며 재작년에 도라가셧지만 C의 아버지는 ××은행의 저배인(支配人)이엿다)

C는 나를 물그럼이 처다보더니 내방으로 줄드러가서 이야기하자하는것이엿다。나는 그대로 여기서 대강만드고 잇다가 내가 저녁을 먹고 너의집에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그랫스나 너무 작고 그러는것도 도리어 안되엿기에 할수업시 C를 데리고 들어갓다。

C는 그동안 톡톡이 고생을 맛보다가 돈도 수배원 업셋다고한다。C는 이상한 눈치로 나를 작고 디려다보드니 입을며 못때문거리고 무엇을 주저하는것처럼 하다가 느닷업시 어런말을하엿다。

『내가 지금것 너한테 말하일도업고 또 네가 나한테 이런말을 한일은 업지만 아마 너는 내가 너의집에 드터오는걸 퍽 끄리는 모양이지。그러기에 내가 너의집엘 와두 한번 들어오란 일이업지안니……』

나는 죄진놈어 자기의 범행(犯行)에 단서를 못잡힌것 가튼 그러한 어상스런 감(感)으로 가슴이 가뭇 쳣다。C는뒤어어 말을 한다。

『너의집이 우리집보담 조금 좁다고해서 너는 그럼 그러무슨 큰수치로나 여기는것 갓더라마는 그거는 네가 아직 나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탓갓다。너는 지금것 나를 무어 부자집 도련님이나 가티 여겨 왓지만 나는 이번에 영화순업을 할적만해두 오양간가튼 잡에서나 정거장에서 한데잠을 자본 일도잇고 며칠동안에 굶어본적이 다연구 소때지기의 형의로 때가없어 잇고 하여튼 별 더러운 일을 다 격거보앗다。물론 그러케 크게 자랑할만한 일은 못되지만 네가 그런일을 당해보앗겟니。나보구 말하라면 도리어 네가 도련님의 소질을 만어 가젓다고 생각한다』

마치 방맹이로 골통을 한대 어더마진것 가티 나는 정신이 얼떨떨 하엿다 너무도 當然하고 급격한 습격이엿다

C는 별안 일어나드니

『너는 나에 친한 동무다 그러나 네가 그런 생일가튼 마음을 내버리지 안는한 영원한 친우는 못될거다』

마치 연극 가튼 말을 또해노코 그대로 나가 버렷다 나는 한동안 넘을 일코 우드머니 안젓섯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C가 그런 말을하게 되엿는지는 좀더 생각하여 보지안흐면 아직모를일이지만 C가 악가 싱을 신을나고 엇속으로 몸을 잔긴 물엿을때 그에 눈에서 눈물이 번쩍이는게 보엿지만 이것이시 도저히 좃기어려운 문제엿다

나는 C가 하고간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푸리 하여보앗는 혼자 얼골을 붉히고 어절줄을 모르리만큼 부끄럽고 분하고 슬픈 감정이 일시에 치미러 올러왓다 그것은 C의한 말에서 무엇을 깨달엇 때서의 (지금것 내가 취한 행동에 대한부끄러움이 아니요。도리어 C에게 일종 모욕을 당한것가튼 그러한 분함이요 부끄러움이요 슬픔이 엿다。

나는 저녁밥을 된둥만둥 먹어처우고 밧그로 튀여나왓다。그리고 고개를 푹숙이고 걸엇다。우리집이 다시어시 보기실흔 까닭에 엿다。노피가 내키만 밧게 안하고 치정하고 질편적하고 기울고 아-우리집은 엇제도 여러케 주할고 나는 어제 하필 이런 집에서사러야만되나。더럽다 더러워 차라리 어대로 정처업시 어디로 사라저 버릴까보다。

나는 머리 우에서 무엇이번적 할때까지 이런 생각에 잠겨 잇섯다。어느름에 무슨일로 왓는지 나는 C네집대문 아페 서잇는것이엿다。대문에 달린전등이 뻔쩍하고 켜젓다。(끗)

サンエッチ H.H.H. 靴クリーム
靴を丈夫にする
少年 단十錢

담배피는이의
スモカ
齒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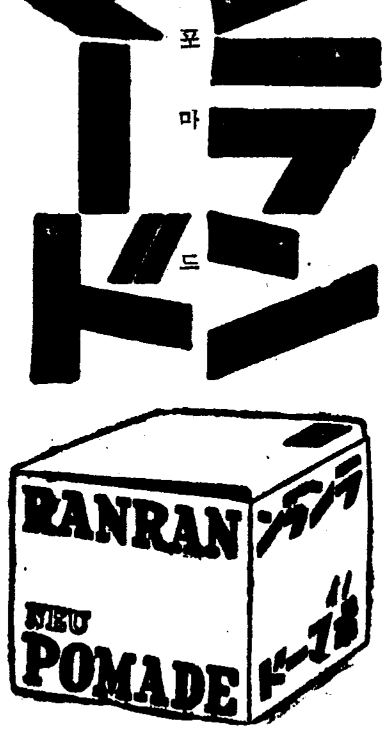
스모카는主로 喫煙家의齒磨입니다 그래서수모카를쓰시면 齒牙의검은진이곳떠러짐니다 그리고喫煙家가 아닐지라도 누구의齒牙에나 純白한빗을나게합니다 스모카는 過度의喫煙에서 생기는입안이해진데? 냄새? 食慾不振? 그것을防止하야口腔衛生을[illegible]합니다 스모카의粉末에는 그[illegible]을適當히 配合햇습니다 그것은가루의 散亂을 막기爲하는것 입니다 一人一罐의 用量은約一個月半、어떠上의消費는 無益입니다
煙草店에有합니다十五錢

煙草店 雜貨店 化粧品店 藥店에有합 定價十五錢

소아건위정장제
小兒健胃整腸劑
ベビー散 베비-산

藥價 拾包入 二十錢 五包入 三十錢
九包入 五十錢 二十包入 一圓
全國藥店에잇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新井藥房
電話本局 五三一 九四 / 三四〇〇 / 三四六 / 四九 / 二六八八
振替口座京城

呼吸하고잇는 皮膚、땀이나오는 毛孔에 幕을치고抑制하는 포마-드를 발라서는 健康上으로나 더운點으로도 못견딜일입니다 그런대 今年四月新發賣의 大阪市立工業研究所 山崎技師 發見에依한 羊毛호로몬 主成의 ランランノイポマード만은 外樣은 포마-드 일지라도 學理的으로 보아서 水分과의混和性은、正히코-르드크림基에屬하야 皮膚의新陳代謝를 活潑케、땀도氣分조케 發散하게되니 愉快한일이안입니가、이야말로 다시업는 保健포마-드이며 더위을 물리치는 爽涼포마-드라고 할것입니다

ランラン ノイポマード
란란 노이포마드